



김진명 | 장신대

1. 서론

성경 전체에서 ‘땅이 거주민을 토해낸다’는 특이한 표현이 등장하는 본문은 유일하게 레위기 18장 24-30절과 20장 22-24절의 두 경우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²⁾ 그런데 땅을 의인화시켜 표현한 이 본문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 물음은 거주민의 죽음을 뜻

-
- 1) * 본 논문은 장신대 교내 연구비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 2) 쉥커는 ‘땅이 토해낸다’는 표현이 문학적이며 편집적 기능 (18-20장을 한 단락으로 연결), 서술적이고 신학적 기능 (올바른 가족관계의 문제와 땅 소유의 문제를 연결), 윤리적 기능 (땅 소유의 필수조건으로서 십계명과 다른 규정들)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Adrian Schenker, "Incest prohibitions", Rolf Rentorff and Robert A. Kugler (ed.), *The Book of Leviticus* (Brill: Leiden. Boston, 2003), 176; 베일리는 ‘땅이 토해낸다’는 표현을 모세의 말이 아니라 본문형성의 마지막 단계로서 포로기 또는 포로기 이후 시대의 H에 속한 말들로 보았다. Lloyd. R. Bailey, *Leviticus-Numbers* (Macon: Smyth & Helwys, 2005), 224.

www.kci.go.kr

하는 것인가 아니면 거주민들의 단순한 추방인가 혹은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되는 포로됨을 말하기 위한 것인가라는 해석적인 질문들로 이어질 수 있으며, 18장 전체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 경고와 그 인과관계의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질문들의 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위의 본문들이 속한 레위기 18장의 해석사를 정리해보고, 이러한 특이한 표현이 구약 정경 안에서 처음 출현한 레위기 18장을 기준 본문으로 삼아, 18장 전체와 24-30절에 대한 주석 작업을 통해 본문의 신학적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구약 내의 다른 책들에서 레위기 18장이 전체적으로 반영되거나 인용된 경우들을 추적하여 분석하고, 최종본문으로서 정경 전체의 맥락에서 레위기 18장의 본문을 재해석했을 때 드러나게 되는 주제와 의미들은 무엇인가를 파악함으로써, 위에서 제기한 문제들의 답을 찾아보고, 본문의 주석적인 의미를 재해석해 보고자 한다. 이 작업은 ‘정경적 전개’라는 개념과 해석방법론을 본문에 적용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³⁾

2. 레위기 18장 본문 해석의 역사

레위기 18장 본문의 오랜 연구사를 고려해볼 때 그 내용은 다양한 형태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연구자의 언어권과 나라에 따라 영어권과 이스라엘과 독일어권과 한국 학자들의 본문해석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의 연구는 시간상으로 197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의 연구 결과물들에 해당한다.

웬햄(Gordon J. Wenham)은 레위기 18장이 성적인 윤리 기준들을 중

3) ‘정경적 전개’에 관한 연구는 공식적 주석 방법론에 속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다. Jin-Myung, Kim, *Holiness & Perfection: A Canonical Unfolding of Leviticus 19* (Bern: Peter Lang, 2011); 김진명, “레 19장의 정경적 전개에 관한 주석적 연구”, 『구약논단』 제24집 (2007. 6), 74-91; 김진명, “발람 이야기” (민 22-24장)의 단락 범위 재설정을 위한 제언 - 민수기 22-25장의 정경적 전개에 관한 연구 -”, 『구약논단』 제24집 (2012. 12), 12-37.

교적 신실성의 동등하며 결정적인 표징들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석하였으며, 24-30절은 18장 전체의 결론적인 후기(epilogue)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이방의 풍속과 성적인 일탈 행위들과 관련된 가나안의 풍습을 피하라는 18장의 규정들을 거절할 경우에 일어나게 될 결과에 관한 경고라고 설명한다. 이것은 고대 조약이나 법률집을 마무리할 때 사용되었던 일련의 저주문들과 유사한 형태라는 것이 그의 해석이다.⁴⁾ 하지만 웬함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풀이하지는 않았다.

이에 비해, 레빈(B. A. Levine)은 ‘포로됨’이라는 구체적인 주제를 본문이 의미하는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레위기 18장을 토라 안에서 근친상간과 금지된 성적 결합의 주제를 다루는 가장 체계적이고 완전한 규정집으로 평가하고, 이스라엘 가족 내의 금지된 성적 관계에 관한 법들을 통해 이스라엘인들의 가족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⁵⁾ 그는 18장의 서언(1-5)과 결어(24-30)가 금지된 성적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문제와 그 결과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언과 결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이스라엘의 권리와 포로됨의 주제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⁶⁾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레위기 18장 본문 자체에서는 ‘포로됨’의 주제를 직접 말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포로됨’의 주제에 관하여 게르스텐베르거(Erhard S. Gerstenberger)는 다른 관점의 해석을 시도하였다. 그는 레위기 18장 자체를 페르시아 시대의 본문으로 전제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근친 관계의 여성

4) Gordon J. Wenham, *The Book of Leviticus* (Grand Rapid: Wm.B.Eerdmans Publishing Co., 1979), 249-250; 260 참조;

5) 레위기 18장을 가족법의 차원에서 해석하는 입장은 다음 자료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Tai-Il Wang, "Marriage Rules and Family Structure in Leviticus 18", 『구약논단』 제10집 (2001. 4), 175-184.

6) Baruch A. Levine, *Leviticus, The JPS Torah Commentary* vol.3 (New York, Jerusalem: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117-118. 밀그롬은 레위기 18장 28절에 대한 설명에서 ‘추방’과 ‘포로됨’을 함께 언급하였다. J. Milgrom, *Leviticus*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4), 209, 211.

과 성적인 관계를 금지하는 규정들을 나열한 7-17절과 18-23절 (21절 제외)의 두 가지 금지 명령의 수집물들이 18장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24-30절은 1-6절과 함께 이 두 가지 금지 목록들을 감싸는 틀을 형성한다. 본문에서 언급된 이집트와 가나안 풍속의 금지가 페르시아 시대 유대인들의 이상적인 생각들이었으며, “토해내다”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일어난 일이고, 포로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인들도 경험한 일이었다.⁷⁾

김덕중은 레위기 18장을 고대근동(히타이트)의 계약체결 양식과 비교하면서, 본문을 “독립적인 계약문서”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안한다. 그는 이방 풍습에 대한 경고가 처음과 종결 부분에 위치하여 전체적으로 성도덕에 대한 금령을 감싸는 구조로 18장이 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신학적 요약으로서 24-30절은 인간의 범죄와 땅의 상관관계를 밝혀준다고 풀이하였다.⁸⁾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내용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위에서 살펴본 해석들은 여전히 레위기 18장 24-30절에 기록된 경고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지 않거나, 이른바 P 문서 혹은 H 문서라는 포로기 이후 시대의 자료로 레위기가 구성되었다는 전제를 가지고 본문으로 접근함으로써, 본문으로부터의 해석(exegesis)보다는 이미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전제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본문이 사용되고

7) Erhard S. Gerstenberger, *Das dritte Buch Mose: Leviticu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3), 224-227; 니한은 가족의 근본적 구조들을 보존함으로써 다른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별하려는 목적으로 레위기 18장이 기록되었다고 보았다. 그는 24-30절을 권면과 경고로 요약하고 땅이 ‘토해내다’는 표현의 의미 해석을 시도하지 않았다. Christophe Nihan, *From Pristly Torah to Pentateuch, Forschungen zum Alten Testament 2. Reihe 25* (Tübingen: Mohr Siebeck, 2007), 430-446 (431).

8) 김덕중, 「거룩: 삶 속에서 만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용인: 킹덤북스, 2013), 57-83; 정중호는 레위기 18장을 ‘가족공동체를 위한 법’으로 보았다. 그도 ‘땅이 토해냄’의 표현을 설명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의 해석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정중호, 『레위기-만남과 나눔의 장』(서울: 한들출판사, 2004), 296-307; 영지(榮至, 김중은의 호)는 ‘땅이 거주민을 토한다’는 표현이 포로로 잡혀감을 뜻하고, 가나안인의 경우는 이스라엘에게 땅이 정복되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해석하였다. 김중은, 『거룩한 길 다니리』(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01), 126-127.

있다(eisegesis)는 평가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종본문으로서 레위기 18장의 문맥 안에서 본문의 의미를 해석한 후에 정경적 맥락 전체에서 드러난 본문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시도를 통하여 본문 해석의 가능성과 그 본문상의 근거들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3. 레위기 18장과 24-30절 본문 해석

더글라스(M. Douglas)는 레위기 18-20장을 18장과 20장이 19장을 중심에 두고 대칭을 이루는 삼각형의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고대 건축물의 ‘박공양식’(pedimental) 구조와 비교할 수 있다고 보았다.⁹⁾ 이러한 본문 구조를 통하여 18장과 20장은 이집트와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 것을 가르치고, 19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수해야 할 율법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레위기 18장은 주로 성적인 관계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그 틀은 매우 광범위한 주제들과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18장은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 금지와 율법준수의 명령(18:1-5)과 근친과의 부정한 성관계 금지의 규정(18:6-18)과 다양한 형태의 부정한 성관계 금지의 규정과 인신제사 금지의 규정(18:19-23)과 거주민과 땅의 더럽힘과 그 결과(하나님의 추방과 땅의 토해냄과 사람의 끊어짐)와 율법준수 명령과 이전의 풍속 금지 명령들(18:24-30)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레위기 18장 1-5절은 다시 30절에서 매우 간략하게 요약된 형태로 반복되어 있으며, ‘율법준수’와 ‘이전 풍속의 금지’라는 두 주제가 연결되던

9) 그는 레위기 전체를 시내산과 성막의 구조가 반영된 형태로 파악하였다. Mary Douglas, *Leviticus as Literature*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58-59, 234-235; M. G. McClenny-Sadler, *Recovering the Daughter's Nakedness* (New York, London: T&T Clark, 2007), 77. 맥클레니-새들러는 레위기 18-20장이 ‘거룩함’의 개념을 통해 주제적으로 연결된 구조를 이루고 있지만, 본래는 독립적인 자료들이었다고 보았다. 18장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딸에 관한 언급이 생략된 점이다.

서 ‘수미상응구조’(inclusio)를 이룬다.¹⁰⁾ 이 가운데 24-30절은 18장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며, 본문은 다음과 같은 문장 구조를 보여준다.

- 24 너희는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אל תטמאו) 알 티타므우) / 그 민족들이 더러움
 +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냄(משלתי מפניכם) 므살레아흐 미프네켄)a
- 25 그 땅이 더러워짐(תטמא הארץ) 바티트마 하아레츠)
 + 그 땅이 거주민을 토해냄(תקא הארץ) 바타키 하아레츠)a’
- 26 이 모든 가증한 일(כל התועבות האלה) 미콜 하토에보트 하엘레)b)을 행하지
 말라 /
 바로 너희는 지켜라(שמרו אתם) 우스마르템 아템) 나의 규례(חקתי) 후코타으)와
 법도 (משפטי) 미슈파타으)를...
- 27 그 땅이 더러워짐(תטמא הארץ) 바티트마 하아레츠)
 + 그 땅의 사람들이 가증한 일들(כל התועבות) 콜 하토에보트))을 행함
- 28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게 하라 + 너희가 그것을 더럽힘으로 /
 그 민족을(그 땅이) 토해낸 것처럼c
- 29 이 모든 가증한 일(כל התועבות האלה) 미콜 하토에보트 하엘레)b’ 을 행하면
 + 그 사람(생명)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짐(תקרתו הנפשות) 베니크르투 하느파
 쇼트)c’
- 30 너희는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אל תטמאו) 베로 티타므우) /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24절과 30절은 “너희는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는 문장을 표현하면서, 부정어 אל(알)과 לא(로)를 달리 사용한 점을 제외하고는 ‘부정하다’라는 뜻의 동사 טמא(타메)를 동일하게 사용함으로써 ‘수미상응구조’를 이루

10) 밀그롬은 레위기 18장이 AXA’ (2-5 권면, 6-23 금지, 24-30 권면)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J. Milgrom, *Leviticus 17-22*, AB (The Anchor Bible) vol. 3A (New York: Double Day, 2000), 1516.

고 있다. 24절과 25절은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쫓아냈다’(לָחַץ 살라흐)a는 것과 그 땅이 거주민을 ‘토해냈다’(הִקָּץ 카야)a’는 문장을 평행시킴으로써, ‘땅’(אֶרֶץ 에레츠)이 토해냈다는 상징적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거주민의 추방’이라는 주제와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6절의 “이 모든 가증한 일들” b 은 29절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며 b’ , 26절에 이어진 결과를 말하는 27-28절은 ‘땅이 토해낸다’ c 는 표현을 다시 사용하였다. 26절과 동일한 용어를 사용한 29절은 그 가증한 일의 결과로서 ‘생명이 끊어진다’(קָרַח 카라트)는 문장을 다시 평행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26-29절의 본문에서 ‘땅이 토해냈다’는 표현이 뜻하는 것은 가증한 일을 행한 사람들의 ‘죽음’이라는 또 다른 주제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

본문에서 사용된 평행법 문장들은 동일한 용어들을 사용함으로써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땅이 토해냈다” 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가증한 일들을 행한 사람들의 ‘추방’과 ‘죽음’을 말하는 것임을 드러내 준다.¹¹⁾

| | | | |
|----|--------------------------|----|-----------------------------|
| 24 | 하나님께서 쫓아내다 (לָחַץ 살라흐) a | 26 | 땅이 토해내다 (הִקָּץ 카야) c (=a') |
| 25 | 29땅이 토해내다 (הִקָּץ 카야) a' | | 생명이 끊어지다 (קָרַח 카라트) c' |

레위기 18장은 이러한 죽음과 추방의 원인으로서는 근친상간(6-18)과 간음(20)과 인신제사(21)와 동성애(22)와 수간(23)을 열거하였다. 남성과 여성 혹은 남성과 남성의 부정한 성관계 문제는 결국 인간관계라는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해석할 수 있으며¹²⁾, 몰렉 숭배와 관련된 인신제

11) 이은애, “레위기 18장의 성관계 조항들,” 『구약논단』 제19집(2005. 12), 69. 이은애는 레위기 18장과 20장이 “사형판결을 가진 성적 범죄 조항들”에서도 두 본문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12) 김덕중, 윗글, 57. 김덕중은 레위기 18장이 가족을 포함한 사회공동체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법규정을 다룬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18장은 성관계 주제를 통하여 인간의 사회적 관계물에 접근하는 방법을 취한 본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의 문제는 ‘종교적’ 주제이며, 동물과의 성적인 관계의 문제는 넓게는 ‘생태계’의 교란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¹³⁾ 이 주제들은 간략하게 ‘혼합’ 혹은 ‘혼잡’의 문제로도 요약할 수 있다. 인간관계의 혼합과 영적인 혼합과 생태계 종간의 혼합으로 각각의 범주를 재해석할 수 있는 이 주제는 레위기 19장 19절에서 식물의 혼합 경작을 금지한 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¹⁴⁾

그렇다면 레위기 18장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은 단순하게 성적인 부정함으로 한정되는 ‘사람’ 사이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와 ‘사람과 생태계’의 관계와 연결된 주제들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레위기 18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18장이 단순하게 가족 공동체 차원의 성적 윤리와 성관계에 관한 정결법의 협소한 주제만을 다루는 것(레빈; 게르스텐베르거)이 아니라 거주민의 생존과 관련된 거시적이며, 폭 넓은 차원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다시 26절에 나타난 ‘율법준수’의 명령을 통해 18장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핵심적인 내용과 연결되어 있으며, 18장은 결국 율법 준수와 여기에 대비되는 이방 풍속의 금지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의 생존을 위한 시급성이 되고 있음을 확증하고 있다.¹⁵⁾

13) 윗글, 79. 김덕중은 인간과 짐승의 교합행동은 “창조질서”를 깨트리는 행위라고 보았다.

14) ‘혼합 금지’의 주제는 레위기 19장에서 거룩함(19:2)과 율법준수(19:18)의 주제들과도 연결될 수 있다.

15) ‘나의 규례’를 지키라는 명령은 레위기 18장에서 4절과 5절과 26절에서 3회 반복해서 사용되었다. Wilfried Warning, *Literary Artistry in Leviticus* (Leiden, Boston, Köln: Brill, 1999), 121–122. 18장에서 용어의 반복은 본문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4. 레위기 18장의 정경적 전개¹⁶⁾

1) 율법서 - 레위기 20장

레위기 20장은 18장은 본문 상호간에 서로 상응하는 구조와 내용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¹⁷⁾ 20장 1-5절은 몰렉숭배와 관련된 인신제사 금지 규정을 자세히 다루면서, 생명이 ‘끊어진다’(נתק 카라트)는 표현을 이 규정의 결론으로 연결지었다 (5). 6절과 27절은 18장에 나와 있지 않은 ‘신 접합’의 규정을 수미상응구조의 형태로 기록하였고, 7-9절에서는 거룩함과 구별됨의 주제를 언급하였다. 10-21절은 근친간의 성적인 결합 금지 규정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22-27절은 18장의 경우에서처럼 결론부에 해당한다.

(1) 낱말, 문장, 표현의 공통점과 차이점

레 18:26 그리고 너희 곧 너희는 지켜라(שמרתם) 우스마르템) 나의 규례(חקות) 후코타으)와 나의 법도(מצוות) 미스파타으)를 ...

20:22a 그리고 너희는 지켜라(שמרתם) 우스마르템) 나의 모든 규례(חקות) 콜-후코타으)와 나의 모든 법도(מצוות) 콜 미스파타으)를...

레위기 18장 26절과 20장 22절 전반부는 사용된 낱말과 문장 구조에서 일치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다만 20장 22절 전반부에서는 לְכָל(콜/모든)이 첨가되었고, 18장 26절의 강조를 위해 반복되었던 אִתְּכֶם(아템/너희)이 생략된 근소한 차이가 나타날 뿐이다. 20장 22절 후반부는 땅이 거주민을 토해낸다는 특이한 표현을 통해 18장과의 뚜렷한 연관성을 보여준

16) 레위기 18장과 본문의 상호간의 연관성을 찾아보기 위한 비교 본문들의 선택은 한 단락 안에 집중적으로 레위기 18장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된 단어, 문장, 주제, 표현, 구조, 내용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한하였다. 신약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나타난 본문을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레위기 18장의 정경적 전개에 관한 연구는 최종 본문으로서 구약의 범위에 한정하여 진행하였다.

17) 이은애, 율글, 53-72.

다. 왜냐하면 이 표현은 레위기 18장과 20장 본문을 제외한 구약의 다른 책들에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레 18:25 그리고 그 땅이 그 거주민을 토해버렸다(**תִּהְיֶה אֶרֶץ**... 바타키 하아레츠)...

20:22b ... 너희가 그것들을 행하면,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אֶרֶץ תִּהְיֶה** 베로-타키) 그 땅이(**תִּהְיֶה** 하아레츠)...

18장 25절과 20장 22절 후반부 역시 동일한 낱말들을 사용하였으며, 18장 24절과 동일한 표현을 사용한 20장 2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전 거주민을 ‘쫓아낸다’(**מְשַׁלֵּחַ** 므살레아흐)라는 표현을 그 땅이 ‘토해낸다’라는 22절의 문장과 평행을 이루도록 배치함으로써, 그 의미가 18장에서 처럼 ‘추방’의 주제로 이어지도록 하였다. 20장은 ‘추방’의 주제만을 ‘토해낸다’는 표현에 연결시켰으며, 24절과 26절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구별됨’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언급하여 강조하였다.

(2) 주제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레위기 20장에서도 이러한 심판의 원인이 근친간의 성관계와 더불어 몰렉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 (2-5), 간음 (10), 동성애 (13), 수간 (15-16)의 목록을 열거하였다. 이 목록 역시 18장과 동일하다.

| 18장 - 성적 관계에 관한 규정 | 20장 - 성적 관계에 관한 규정 |
|--------------------|--------------------|
| 간음 (20) | 인신제사 (2-5) |
| 인신제사 (21) | 간음 (10) |
| 동성애 (22) | 동성애 (13) |
| 수간 (23) | 수간 (15-16) |
| | 신접함 (6, 27) |

그러나 20장 6절과 27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점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새롭게 나타났으며, 18장에 비해 20장은 몰렉 숭배와 관련된 인신제사 금지 규정을 더 자세하게 다루었다. 순서상으로도 인신제사의 문제가 첫 번째에 나오도록 배치하였다. 20장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18장의 내용들이 본문에서 반복되도록 기술하였고, 조건절 문장을 사용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할 경우에는 ‘그 땅이 토해내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였다. 이 형식은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전의 민족들을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쫓아내었고, ‘그 땅이 토해 버렸다’고 했던 표현과는 대조적인 대칭을 이루고 있다. 레위기 20장은 이러한 묘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추방’의 주제로 집중시켜 글을 전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역사서 - 열왕기하 17장 7-18절

(1) 구조적인 유사성과 차이점

열왕기하 17장 7-12절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관하여 언급하고, 13-16a 절에서는 מִצְוֹת (미츠보타우/나의 명령), חֻקֵּי (후코타우/나의 율례), חֻקֵּי (하토라/율법), בְּרִיתוֹ (브리토/그의 언약) 등의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야훼의 ‘율법’을 강조하며, 그에 대한 불순종의 문제들을 지적하였다. 다시 16b-18절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관하여 열거하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왕하 17:7-12 이스라엘의 범죄 / 13-16a 율법 / 16b-18 이스라엘의 범죄). 열왕기하 17장 7-18절의 본문 구조는 레위기 18장이 ‘권고적 명령(18:1-15) / 율법 조항(18:6-23) / 권고적 명령(18:24-30)’의 ‘3단 양식’의 구조와 그 유사성을 비교해 볼 수 있다.¹⁸⁾ 레

18) 박철우, 『구약성서의 구조와 신학』(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4), 56. 박철우는 레위기 20장도 동일한 3단 양식의 구조로 되어있다고 분석하였다; 율법 및 권고적 명령(20:1-18) / 율법조항(20:9-21) / 율법 및 권고적 명령 (20:22-27)

위기 20장에서 이와 동일한 구조가 나타나고 있으며, 좀 더 확대된 범위로서 레위기 18-20장의 단락 역시 ‘이방풍속(18) - 율법(19) - 이방 풍속(20)’의 3단 형태의 공통적인 구조를 보여준다.¹⁹⁾

더글라스가 ‘박공구조’라고 언급했던 3단 구조는 레위기 18장과 열왕기하 17장 7-18절의 공통 요소에 해당한다. 하지만 율법과 관련된 용어들이 반복됨으로써 이 주제가 강조된 형태는 레위기 18-20장 보다 열왕기하 17장에서 더욱 분명하게 부각되었다. 열왕기하 17장은 율법을 강조한 형태로 본문을 전개한 특징을 보여준다.

(2) 용어와 내용상의 유사성과 차이점

열왕기하 17장은 우선 1-6절에서 호세아 왕 시대에 앗시리아에 의한 북이스라엘 멸망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다음으로 7-18절에서는 북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열왕기하 17장 7절은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8절은 이스라엘 이전의 이방인들의 규례를 언급함으로써, 마치 레위기 18장이 애굽과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을 금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과 두 지역과의 연관성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여러 왕의 규례’를 첨가한 형태로 본문을 구성하였다. 멸망의 원인으로 열거된 주제들은 인신제사 (17a)와 율법에 대한 불순종 (13-15)과 주술 (17b)과 산당 (9, 11)과 우상숭배 (10-12, 16; 바알, 아세라, 목상, 송아지)와 선지자 및 선견자의 선포 (13)에 관한 내용을 함께 언급하였다.²⁰⁾

이 가운데 인신제사의 문제는 레위기 18장 21절의 몰렉 숭배에 관한

19) J. Milgrom, *율법*, 193 참조.

20) 열왕기하 17장과 레위기 18-20장의 평행 혹은 상응 구조와 특징들에 관하여는 김진명, “열왕기하 17장에 나타난 신명기적 전승에 관한 재고” -레위기 18-20장의 정경적 전개 가능성에 관한 검토-, 목회와신학 편집부, 『열왕기하』, 두란노HOW주석 vol. 11,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08), 125-137에서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 홉스는 열왕기하 17장에 걸쳐서 신명기적 단어와 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가 제시하는 자료들은 신명기서에 단편적으로 산재한 여러 본문들과의 비교로 평가할 수 있다. T. R. Hobbs, *2 Kings, WBC (Word Biblical Commentary) vol.13* (Waco: Word Books, 1985), 228-241 (228).

규정과 비교할 수 있으며, 율법에 관한 내용은 18장 4-5절의 명령들과 상응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레위기 18-20장에서 사용한 신명이 **יהוה אללהיכם**(아도나이 엘로헤킴/주 너희 하나님) 형태인 것에 비해 열왕기하 17장에서는 **יהוה אללהיכם**(아도나이 헬로헤킴/주 그들의 하나님) 형태의 신명이 사용되었다. 인칭의 차이를 제외하면 동일한 신명을 사용하고 있는 점도 본문들 상호간에 상응하는 요소에 해당한다.

열왕기하 17장 17b의 주술에 관한 내용은 레위기 20장 27절의 신접한 자와 무당에 관한 규정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열왕기하 17장에서는 레위기 18장과 비교했을 때 성적인 부정함에 관한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우상숭배와 산당과 금송아지 등과 같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상에 집중한 특징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징은 레위기 18장의 사회적 관계와 생태계 주제 대신에 ‘종교적’ 차원의 ‘영적인’ 혼합의 문제로서 우상숭배를 강조하는 형태로 전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는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들에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설명하기 위하여 접속사 **כי**(왜냐하면)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17장 7절 바로 앞의 6절에서는 접속사 ‘기’(왜냐하면)와 연결된 결과절이 나온다. 6절은 호세아 왕 때에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앗수르 왕에 의해 사로잡혔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앗시리아의 여러 지역에 포로로 끌려갔다는 구체적인 결과를 기록하였다. 열왕기하 7장의 단락에서 마지막 구절인 18절에서는 전체적인 결론으로서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제거하였다’는 표현으로 그 멸망의 상황과 포로됨의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한다.

왕하 17:6 ... 앗수르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לָקַח** 라카드)... 앗수르로 그가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갔다(**לָקַח אֶת-יִשְׂרָאֵל** 바예겔 에트-이스라엘)...

왕하 17:18 그리고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매우 진노하셨다. 그래서 그가 그의 앞에서 그들을 제거하셨다.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לֹא נִשְׁאַר** ...)

18절에서 '제거하다'(수르 בָּרָא)로 번역한 동사는 6절에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됨을 묘사한 표현들과 서로 상응하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문장 구조와 서술을 연결시킴으로서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내용이 '포로됨'이라는 한 주제에 집중되도록 기술하였다. 레위기 18장에서 '쫓아내다'와 '생명이 끊어지다'와 '땅이 토해내다' 등의 동사를 통해 추방과 죽음의 주제를 심판의 내용으로 제시한 것에 비해 열왕기하 17장은 '취하다,' '포로로 끌어가다,' '제거하다' 등의 동사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은 '포로됨'이라는 역사 속의 구체적인 결과로 드러났음을 보여주는 형태로 본문을 전개하였다.

3) 예언서1-에스겔 22장 1-16절

(1) 용어, 구조, 내용상의 유사성과 차이점

에스겔 22장 1-16절 단락은 심판 예고 (1-5) / 심판의 이유 (6-12) / 심판 예고 (13-16)형태의 소단락들로 구성된 3단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와 내용의 구성은 레위기 18장 내에서도 18-20장에서도 나타나는 특징들이다. 첫 번째 소단락의 3-4절에서 '피흘림'에 관한 표현은 세 번째 소단락의 13절에서 언급한 동일한 주제로 연결되어 있으며, 1-16절의 구조 안에서 13-16절은 결론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²¹⁾ 첫 번째 소단락 가운데 2절의 תועבה (토에바/가증한 일)는 3-4절의 תָּמָא (타메/더럽히다) 동사와 연결되어 그 성읍 (예루살렘)의 죄악을 고발하고 구

21) Walther Zimmerli, *Ezekiel 1*, Fortress Press (tr.) *Ezekiel 1*, Hermeneia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9), 454; 올레이는 에스겔 22:1-16 단락을 2-5, 6-9, 10-12, 13-16의 네 개 단락으로 나누기도 한다. 13-16절의 결론부 단락 구분은 침벌리의 경우와 일치한다. J. W. Olley, *Ezekiel* (Leiden, Boston: Brill, 2009), 382-386.

정하는 기능을 한다. 레위기 18장 26절에서는 2절의 ‘가중한 일’과 동일한 용어가 사용되었고, 레위기 18장 24-30절에서도 4절의 ‘더럽히다’와 동일한 동사가 사용되었다.

4-5절의 이방인에게 ‘능욕’ (הִקְפָּה 헤르파)을 받고, 다른 나라들 (אֲרָצוֹת 아라초트)에 ‘조롱거리’ (קָלָסָה 칼라사)가 된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 내용에 해당한다.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3-4절에서 피흘림과 우상숭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내용은 조건문 형식으로 성적인 부정함의 문제를 강조하면서 우상숭배 (물렉제의)의 주제를 다루었던 레위기 18장의 내용과 부분적으로 상응하고 있다.

(2) 주제적인 유사성과 차이점

레위기 18장 24절 אֵל-הַטְּמֵאוֹ ... נִטְמָאוּ הַגּוֹיִם אֲשֶׁר-אֲנִי מְשַׁלַּח מִפְּנֵיכֶם (알 티타 므우 ... 니트므우 하고임 아쉐르 아니 므살레아흐 미프네켄 / 너희는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이방인들이 스스로 더럽혔다)

25 וַתִּקַּא הָאָרֶץ ... וַתִּטְמָא הָאָרֶץ (바티트마 하아레츠 ... 바타키 하아레츠 / 그 땅이 더러워졌다... 그 땅이 토해버렸다)

에스겔 22장 15절 ... וְהִפְצִיתִי אוֹתָךְ בְּגוֹיִם וְרִיתֶיךָ בְּאֲרָצוֹת (바하피초티 오타 크 바고임 브제리티크 바이라초트 / 그리고 내가 그를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지게 하고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다...)

에스겔 22장 15-16절에서 하나님의 심판 내용은 다른 나라들에 흩어지게 됨과 그들의 더러움(טְמָאוֹה 투므아)이 제거됨과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함(לָלַח 할랄)으로 기록하였다. 15절의 ‘투므아’는 4절의 ‘타메’ 동사와 동일한 어근을 사용하는 용어로서 두 본문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²²⁾ 15절의 ‘흩어버리다’(פָּרֵץ 푸츠 / זָרָה 자라)라는 뜻의 동사들은

22) 윗글, 459. 13-16절 본문은 4-5절 본문에서 언급된 것들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אֲרָצוֹת(아라초트/땅들, 나라들)와 연결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은 거주민의 단순한 ‘추방’이 아니라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됨’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 용어들은 레위기 18장에서 명확하지 않았던 ‘땅이 토해냄’(קִיָּא 카야)과 거주민을 ‘쫓아냄’(נִלְחָץ 살라흐)으로 표현되었던 하나님의 심판 경고들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며, 두 본문 사이에서 주제적으로 서로 상응하는 특징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주제상의 유사성과 차이점

1-5절에서 언급한 피흘림과 우상숭배의 주제들은 사회적이며 종교적인 차원의 죄악상에 관한 고발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죄악상은 6-12절의 두 번째 단락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근친상간과 간음에 관한 사항들(9-11)은 성적인 부정함의 문제에 집중했던 레위기 18장과 구체적으로 상응하는 내용이며, 부모를 공경하지 않음과 안식일을 더럽힘과 성물과 관련된 문제들과 나그네 학대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착취와 피흘림 등의 죄악상은 레위기 19장에서 열거하는 내용들과 상응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에스겔 22장 1-16절의 본문은 레위기 18-20장의 주제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에스겔 22장에서 나타난 특징은 하나님의 심판 주제를 ‘심판자’로서 하나님과 ‘심판받는 자’로서 이스라엘 사이의 시각에서만 아니라 이방민족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제3자의 시각을 인식하도록 한 점이다.²³⁾ 그러므로 에스겔 22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결과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제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국

23) 윗글, 460. 침멀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거룩한 진노를 드러내시고, 이방인들의 눈에 조롱거리가 되게 하신 사건이 세상에는 ‘거리끼는 것’과 ‘미련한 것’ (고전 1:23)이 되었다고 표현하였다.

제적인 시각과 관계 속에서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약의 사건 이해와 해석에 있어서 ‘시야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정경적 전개가 이루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예언서2 - 스가랴 7장 8-14절

스가랴 7장 4절-8장 23절까지의 단락은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라는 특징적인 양식이 네 차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련의 신탁 본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7장 8-14절까지의 본문은 과거에 대한 교훈을 수록한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한다.²⁴⁾

(1) 주제의 유사성과 차이점

스가랴 7장 1절은 페르시아 시대 다리오왕 4년에 야훼의 말씀이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1-7절 전반부는 포로기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종교의식 가운데 하나였던 ‘금식’의 전통에 관하여 언급하고²⁵⁾, 8-14절의 후반부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큰 진노가 내린 이유를 먼저 설명한 후에(8-12),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여러 나라에 흠뻑고, 땅이 황폐하였다고 표현하였다. ‘흠뻑다’로 번역한 히브리어 동사 קָטַף (사알)은²⁶⁾ 거주민의 ‘추방’이라는 주제와 더 적절하게 연결될 수 있는 표현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추방’의 주제는 레위기 18장에서 추방과 죽음과 (땅의) 토해냄의 세 가지 표현들

24) H. G. Mitchell, J. M. P. Smith, J. A. Bewer, *Haggai, Zechariah, Malachi and Jonah* (Edinburgh: T & T Clark, 1971), 198.

25) R. L. Smith, *Micah-Malachi*, WBC vol. 32 (Waco: Word Books, 1984), 226-227. 스미스는 스가랴 7장을 1-6절의 금식에 관한 주제를 다룬 부분과 7-14절의 사회정의를 강조한 부분으로 구분하고, 두 가지 주제에 대한 연결은 스가랴서와 이른바 제2이사야 (사 58:1-9)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 파악하였다.

26) H. J. Fabry, “ קָטַף ” *Theologisches Wörterbuch zum Alten Testament*, Band V, (Stuttgart, Berlin Köln, Mainz: Verlag W. Kohlhammer, 1986), 894-898. 이 동사는 본래 ‘폭풍우 치다,’ ‘울기다,’ ‘불붙이다,’ ‘들진하다’ 등의 의미들도 갖지만, 강세형 (피엘)에서 ‘던지다,’ ‘흠뻑버리다’로 번역할 수 있다.

가운데 ‘쫓아내다’(חָלַץ 살라흐)라는 24절의 동사와 연관된 추방의 주제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스가랴 8장 14절은 특이하게 ‘땅’의 주제도 함께 언급하는데, 레위기 18장에서 땅이 거주민을 토해낸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비해, 스가랴 7장에서 땅은 ‘황폐하다’는 뜻의 חָפְזָה(야삼) 동사를 통해 수동적으로 표현되었다.

스가랴 7장 14절 ... וְהָאֲדָמָה אֲחֻרָיִם אֲחֻרָיִם אֲחֻרָיִם אֲחֻרָיִם ... (그리고 땅은 황폐하였으며, 그들 후에 지나가는 이도 없고 돌아오는 이도 없었다)

이와 함께 ‘오고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표현은 열왕기하 17장 18절의 북이스라엘 멸망 상황 묘사에서 나타났던 문장의 메아리처럼 보인다. 하나님과 사람과 땅의 주제가 함께 나타난 것은 레위기 18장에서의 경우와 비슷하다. 이러한 묘사는 토지가 황폐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칠십년이 지났다고 기술한 역대하 36장 21절과도 같은 내용이지만, 그 표현법에서는 차이를 보여준다. 역대하는 땅이 ‘안식년을 누림’이라는 긍정적 해석을 제시하지만, 스가랴서는 단순하게 땅의 황폐함을 더 강조한 형태로 결론부를 마무리하였다. 스가랴서에서는 다른 본문들의 요소들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형태로 변형되어 전개되는 특징이 나타난다.

(2) 표현과 내용상의 유사성과 차이점

스가랴 7장의 짧은 본문에서는 다른 여러 본문들에 등장했던 요소들이 드러나면서도 예언서의 성격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요소들이 등장한다. 본문의 ‘만군의 여호와’라는 신명은 다른 예언서들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형태의 호칭이며, 레위기 18장을 포함한 레위기 본문들에서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אֲנִי יְהוָה אֱלֹהֵיכֶם) 아니 아도나이 엘로헤켄)이라는 신명

선포의 문장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특징과 비교해 볼 수 있다.²⁷⁾ 스가랴 7장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땅을 황폐하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방한 이유를 8-12절은 진실한 재판 행함, 인애, 공휼 베푸(9),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않음(10), 율법과 선지자의 전한 말을 들음(11-12) 등을 요구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열거한다. 이 내용들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에 의해 강조되었던 ‘사회정의’ 차원의 주제들에 해당한다.²⁸⁾

레위기 18-20장이 경고문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임하지 않는 조건들을 열거했다면, 스가랴 7장은 유다의 멸망과 포로됨의 사건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원인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여러 주제들을 나열한다. 스가랴서의 본문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굳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고 싫어했다는 내용도 함께 언급되었다(11-12). 그런데 여기에 열거된 주제들 가운데 진실한 재판은 레위기 19장 15절의 재판에 관한 명령과 상응하며, 나그네에 관한 내용은 레위기 19장 10절과 나그네 사랑에 관하여 명령한 33-34절의 규정과 상응한다. 압제 금지의 주제는 레위기 19장 13절과 연결될 수 있으며,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들이 레위기 19장 전체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점은 스가랴 7장과 유사하다.

스가랴 7장의 전체적인 표현과 내용들은 레위기 18장과 19장에 걸쳐서 나타나는 용어와 문장들과 서로 상응하는 특징을 보여준다.²⁹⁾ 스가랴

27) 박철우는 מִן־כָּל־אֲנָשִׁים וְכָל־אִשָּׁה וְכָל־אִישׁ(아니 아도나이 엘로헤켄/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이라는 표현이 레위기 19장에서 15회에 걸쳐 나타나며, 이는 레위기 19장의 특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박철우, “구약의 타법전과의 비교 분석을 통한 레위기 19장의 중심신학고찰: 5개의 정형화된 표현들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제45집 (2012. 9), 89-90.

28) R. L. Smith, 윗글, 225-227.

29) M. R. Stead, *The Intertextuality of Zechariah 1-8* (New York, London: t&t clark, 2009), 231-236. 스타드는 ‘언약’을 강조한 예레미야 7장과 이 주제가 뚜렷하지는 않은 스가랴 7:7-1401 본문상호적 관계를 보여준다고 보았다. 그러나 스가랴 7장의 나그네에 관한 내용과 땅에 대한 묘사와 율법의 주제 등은 예레미야 7장에서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오히려 레위기 18-19장과 상응하는 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

7장은 ‘율법과 예언’의 주제를 함께 언급하면서, 사람이 여러 나라에 흩어졌다는 ‘추방’의 주제와 함께 땅이 ‘황폐하고 오고가는 이가 없었다’라는 새로운 표현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묘사하였다. 이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사회정의’를 요구했던 예언자들의 선포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5. 결론 – 정경적전개의 맥락에서 레위기 18장의 재해석

최종본문으로서 정경 전체에 걸쳐 레위기 18장의 특징이 전체적으로 반영되거나 서로 상응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본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율법서와 역사서와 예언서에서 각각 한 단락의 본문을 찾아내어 레위기 18장과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결과와 그 원인을 경고하는 형식의 레위기 18장은 레위기 20장과 열왕기하 17장과 에스겔 22장과 스가라 7장의 본문들과 본문 상호간에 연관성들을 보여주고 있다.

레위기 18장은 하나님과 사람과 생태계의 관계에 관한 하나님의 금지 명령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레위기 18장 24-30절에서 ‘땅이 토해낸다’는 문장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본문의 의미는 자체 문맥 안에서 거주민의 추방과 죽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레위기 18장의 내용은 레위기 20장에서 거의 반복되는 형태로 반영되었고, 심판의 내용은 ‘추방’의 주제에 집중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열왕기하 17장에서는 구체적인 역사의 현장에서 멸망의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그 신학적 의미와 교훈을 나름대로 제시하였다. 그 해석적인 결과로서 종교적인 범죄에 집중하면서 북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을 제시하고 ‘포로됨’의 주제를 하나님의 심판 결과로 설명하는 형식으로 본문이 전개되었다.

에스겔 22장은 이상숭배와 성적인 부정함과 사회정의 차원의 문제들을 다룸으로써 레위기 18장뿐만 아니라 19장의 특징들도 함께 반영해

주고 있으며, 이방으로의 추방과 포로됨의 주제와 더불어 다른 나라들에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에서 내용을 전개하였다. 스가랴 7장은 하나님과 사람과 땅의 주제가 함께 등장하는 동시에 사회정의에 속한 주제들에 집중하는 형태로 본문이 전개된 특징을 보여준다. 이 본문들을 서로 상응하는 주제와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본문들과 비교해볼 때, 레위기 18장의 본문이 더 다양하고 종합적인 특징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양한 주제들과 내용들은 레위기 18장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연결된 각 책(율법서, 역사서, 예언서)의 시대와 정황 가운데서 강조점을 달리하는 형태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구약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레위기 18장의 ‘땅이 토해낸다’는 문장은 거주민의 추방과 죽음과 포로됨의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레위기 18장의 정경적 전개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그러한 해석의 정당한 근거들을 구약 본문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레위기 18장에 나타난 여러 관계(하나님/사람/동물)에 있어서 부정함의 문제들은 결국 종교적이며 사회적인 차원의 죄악과 생태계 차원의 혼란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과 공동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시각에서만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국제관계라는 폭넓은 시야 가운데서 인식하고 해석해야 할 문제라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본문 해석에 대한 새로운 주제도 발견할 수 있었다.

6. 참고문헌

김덕중, 『거룩: 삶 속에서 만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용인: 킹덤박스, 2013).

김중은, 『거룩한 길 다니리』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2001).

김진명, “레 19장의 정경적 전개에 관한 주석적 연구”, 『구약논단』 제24집 (2007.6), 74-91.

- _____, “‘발람 이야기’ (민 22-24장)의 단락 범위 재설정을 위한 제언 - 민수기 22-25장의 정경적 전개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제24집 (2012. 12), 12-37.
- 목회와신학 편집부, 『열왕기하』, 두란노HOW주석 vol. 11,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8).
- 박철우, 『구약성서의 구조와 신학』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4).
- _____, “구약의 타법전과의 비교 분석을 통한 레위기 19장의 중심신학고찰: 5개의 정형화된 표현들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제45집 (2012. 9), 89-90.
- 이은애, “레위기 18장의 성관계 조항들”, 『구약논단』 제19집 (2005. 12), 53-72.
- 정중호, 『레위기-만남과 나눔의 장』 (서울: 한들출판사, 2004).
- Bailey, L. R., *Leviticus-Numbers* (Macon: Smyth & Helwys, 2005),
- Douglas, M., *Leviticus as Literature*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Fabry, H. J., “סָעַר” *Theologisches Wörterbuch zum Alten Testament*, Band V, (Stuttgart, Berlin Köln, Mainz: Verlag W. Kohlhammer, 1986).
- Gerstenberger, E. S., *Das dritte Buch Mose: Leviticu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3).
- Hobbs, T. R., *2 Kings, WBC (Word Biblical Commentary)* vol.13 (Waco: Word Books, 1985).
- Kim Jin-Myung, *Holiness & Perfection: A Canonical Unfolding of Leviticus 19* (Bern: Peter Lang, 2011).
- Levine, B. A., *Leviticus, The JPS Torah Commentary* vol.3 (New York, Jerusalem: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 M. G. McClenny-Sadler, *Recovering the Daughter's Nakedness* (New

- York, London: T&T Clark, 2007).
- Milgrom, J., *Leviticus 17-22, AB (The Anchor Bible) vol.3A* (New York: Double Day, 2000).
- _____, *Leviticus*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4).
- Mitchell, H. G., Smith, J. M. P., Bewer, J. A., *Haggai, Zechariah, Malachi and Jonah* (Edinburgh: T & T Clark, 1971).
- Nihan, C., *From Pristly Torah to Pentateuch, Forschungen zum Alten Testament 2. Reihe 25* (Tübingen: Mohr Siebeck, 2007).
- Olley, J. W. *Ezekiel* (Leiden, Boston: Brill, 2009).
- Schenker, A., "Incest prohibitions" Rolf Rentorff and Robert A. Kugler (ed.), *The Book of Leviticus* (Brill: Leiden, Boston, 2003).
- Smith, R. L., *Micah-Malachi, WBC* (Word Biblical Commentary), vol. 32 (Waco: Word Books, 1984).
- Stead, M. R., *The Intertextuality of Zechariah 1-8* (New York, London: t&t clark, 2009).
- Wang Tai-Il, "Marriage Rules and Family Structure in Leviticus 18" 『구약논단』 제10집 (2001. 4), 175-184.
- Warning, W. *Literary Artistry in Leviticus* (Leiden, Boston, Köln: Brill, 1999).
- Wenham, G. J., *The Book of Leviticus* (Grand Rapid: Wm.B.Eerdmans Publishing Co., 1979).
- Zimmerli, W. *Ezekiel 1*, Fortress Press (tr.) *Ezekiel 1, Hermeneia*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9).

검색어

정경적 전개

레위기 18장

땅이 토해냄

하나님의 심판

An Exegetical Study for the Canonical Unfoldings of Leviticus 18

- an interpretation of meaning in the expression; ‘the land vomits.’-

Kim, Jin-Myung Th.D.

Assistant Professor, Dept. of Old Testament Theology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meaning of the expression ‘vomiting of the land’ in Leviticus 18. This personified expression occurs only in Lev 18 and 20 throughout the whole Bible. What is the meaning of the phrase? This question can be connected with the exegetical issue of Leviticus 18. The methodology of this article is ‘an exegetical study for the canonical unfoldings’, and is applied to the study of Leviticus 18, in which the expression is shown for the first time in the final text of the Bible.

The concept of ‘canonical unfoldings’ can be adapted to the whole chain of works, which are to comment on Lev 18, to compare and analyze the connected texts in the Bible, and to reinterpret the meaning of the chapter

www.kci.go.kr

in the context of the whole related texts. Through commenting Lev 18, it made possible for us to see that many concepts, issues and contents of sins of the Israelites and God's punishment are dealt in Lev 18 (unlawful sexual relations, idolatry, the Law, defilement of the land/death, expulsion, judgment of God etc.), thus it is not limited to the issue of illicit sexual activity. A study for the canonical unfolding of Lev 18 in the OT(Lev 20, 2 Kings 17:7-18, Ezek 22:1-16, Zech 7:8-14) demonstrates the various elements of Lev 18, which are illuminated and concentrated in these texts. Also, according to the focus and context of each text in these books, there arise some differences as well.

In the reinterpretation of Lev 18, the present writer summarizes that the vomiting of the land can be perceived as death, expulsion and exile, based on the concrete textual bases. Through this process, the present writer proposes the possibility that the issue of God's punishment in Lev 18 should be perceived and interpreted not in the limited perspective of Israel, but in the broad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relations(cf. Ezek 22:1-6).

Key Word

Canonical Unfoldings

Leviticus 18

vomiting of the land

God's punishment,

- 투고일: 2014년 1월 01일
- 심사일: 2014년 1월 20일
- 게재 확정일: 2014년 2월 01일

www.kci.go.kr